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5년 7월 2일 (수)	보도시점	배포 직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퍼스트바이오, 싱가포르에서 성황리에 IR 완료

- AI 기반 플랫폼 고도화… 다쏘시스템과 공동연구 본격 착수
- 글로벌 협력 우수기업으로서, 글로벌 진출 가능성 및 R&D 경쟁력 입증



주식회사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대표 김재은, 이하 퍼스트바이오)가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지난해 동일 프로그램 1단계 수행에 이어 올해는 우수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신설된 2단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AI 기반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세계 유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업이다. 2019년 시작되어 다쏘시스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현재까지 13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우수한 성과의 글로벌 협력 졸업기업을 위한 2단계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퍼스트바이오는 지난해 AI 버추얼 트윈 기업 다쏘시스템(Dassault Systèmes)과의 다운다 1단계 과제 협업을 통해 글로벌 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도 2단계 과제에 연속 선정되며 AI 기반 약물발굴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협업에서 퍼스트바이오는 다쏘시스템 바이오비아(BIOVIA) Contract Research 팀과 함께 약물 유효성 평가를 위한 분자 결합 분석,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등의 연구를 진행하며 이미 구축하여 보유중인 고유의 AI 약물발굴 플랫폼의 구조 기반 약물설계 기능의 고도화 및 예측 정확도 향상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각종 네트워킹 행사와 컨퍼런스에 적극 참여해 AI 분야의 기술 트렌드 내재화 및 글로벌 시장과의 접점을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

김재은 대표는 “수년간 쌓아온 퍼스트바이오의 AI 기반 약물발굴 기술력과 초기 디스커버리 플랫폼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아 기쁘다”며, “3D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컴퓨팅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인 다쏘시스템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혁신 신약개발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AI와 바이오테크의 새로운 융합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퍼스트바이오 테라퓨틱스]

퍼스트바이오는 2016년 설립되어 퇴행성 뇌질환, 면역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선도적 바이오텍으로 성장해왔다. 면역항암제 ‘FB849’는 2023년 미국에서 첫 환자 투약을 시작으로 임상 1/2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병용 투여 임상시험을 위하여 MSD로부터 PD-1 항체 ‘키트루다(KEYTRUDA®, pembrolizumab)’의 무상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파킨슨병 치료제 ‘FB-101’은 c-Abl 저해제로, 미국에서 임상 1상 단일용량상승시험(SAD)을 완료했다